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참된 주인과 거짓 주인

찬미예수님! 약 13년 전에 발표된 '걱정말아요 그대'라는 노래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 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아주 큰 힘과 용기가 되어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나라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일자리 걱정 등 쉽게 해결되지도 않는 무수히 많은 걱정거리를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해 보려 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 머리만 더욱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걱정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복음말씀을 들으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 6,24)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과 재물,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과 재물, 두 가지 모두 선택하고 싶은데 하느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 같아서

는 하느님 편에 발 한쪽을 담그고, 또 다른 발 한쪽은 재물 편에 담가서 하느님과 재물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말입니다. 물론 재물대신 하느님을 완전히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재물을 포기하기란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가리켜 주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주인으로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 만큼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재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돈이나 그 밖의 값나가는 모든 물건'입니다. 생각해 보면, 돈이나 그 밖의 많은 물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거나 부족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평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죠.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조건이지 그것 자체로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을 멋있고 화려하게 꾸며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반면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멋있고 화려하게 꾸며주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바보소리 듣고, 순박한 사람이라고 놀림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히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 삶의 단 한순간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매 순간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전해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두 주인, 곧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과연 나는 어떤 주인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로 인도해 주는 참된 주인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거짓 주인입니까?

남성동 본당 보좌 이승준 도미니코 신부

전 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8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굽어 살피시며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쌓여 가는 노고와 걱정 가운데서도 탐욕과 이기심에 빠지지 말고 하느님 아버지의 섭리를 깊이 신뢰하며 먼저 하느님 나라와 의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입당성가 : 66번 '주의 백성 모여 오라'

본기도

† 주님, 이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이끌어 주시고, 교회가 자유로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 이사야서 49장 14절-15절

안 내 : 이사야 예언자는 절망과 불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어서 결코 깨뜨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묵 상 : 하느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기를 원하시며 어떤 최악의 경우에라도 당신께 전적으로 의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느님을 불신 하는 것입니다.

화 답 송 : ◎ 내 영혼아, 하느님을 고요히 기다려라.

제2독서 : 코린토 1서 4장 1절-5절

안 내 : 바오로 사도는 우리는 하느님의 시종이고 관리인이며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미리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묵 상 : 교회의 일꾼들로서 불리움 받은 우리들은 형제들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물들에 감사드리며 은총을 잘 관리하는 충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 6장 24절-34절
강　　론 : '참된 주인과 거짓 주인'(1-2쪽)
예물준비성가 : 217번 '정성어린 우리 제물'
영성체성가 :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이 세상 재물은 그 자체로는 선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며 그분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하느님 보다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재물은 악이 되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침묵>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침묵>
우리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리고 행복을 주는 것은
결코 돈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검소하게 살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서로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 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33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 공소사목 성금

운수공소	*100,000*원	심평상님	*50,000*원
박기섭님	*1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1,65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 림

■ 안동교구 가톨릭 여성연합회

그동안 활동하지 않던 여성연합회를 재정비하여 지난 2월 14일 새출발을 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 : 권정숙(율리안나) 평협 여성 부회장
부회장 : 김은희(세실리아) 여성분과 위원장
총무 : 박효진(율리안나) 여성분과 위원차장
서기 : 오순희(말가리다) 여성분과 위원차장
담당신부 : 김정현(마태오) 사목국장

■ 지구 구역·반장연수

· 상주지구 : 2월 26일(주일)
  - 계림동 성당
· 북부지구 : 3월 5일(주일)
  - 휴천동 성당(2월 28일까지 신청)
· 동해지구 : 3월 12일(주일)
  - 영해 성당(3월 7일까지 신청)
· 시간 : 10:00 - 16:00
· 준비물 : 미사준비, 필기구
· 대상 : 각 본당 구역·반장
· 참가비 : 1인 10,000원

■ 청년 음악 피정

· 일시 : 2월 26일(주일) 10:00 - 21:00
· 장소 : 목성동주교좌성당
· 강사 : 생활성가 솔로 가수들로 이뤄진
  "희망을 노래하는 찬양팀"
  J-Fam(제이팸:Jesus Family)
· 대상 : 청년이면 누구나 환영!
· 참가비 : 1인 10,000원
· 문의 : 사목국(858-3114~5)
  김효은 로사리아(010-2121-9250)

■ 레지오 마리애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피정

· 일시 : 3월 4일(주일) 10:00 - 14:00
· 장소 :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Pr. 단장
  (단장 불참시 반드시 대리 참석)
· 참가비 : 1인당 10,000원
· 강사 : 안상덕(다니엘) 마산 Re.전단장
· 준비물 : 묵주, 활동수첩,
  월례회의 해당자 월례회의 준비
※ 금번 교육은 실무 위주 교육이므로
  특히 신임 단장 또는 4간부님 참석 요망

■ 3월 예비신학생모임

· 일시 및 장소 :
  3월 12일(주일) 12:00 (태화동본당)
  안동·의성·북부·동해지구
  3월 19일(주일) 12:00 (모전동본당)
  상주·문경지구
· 문의 : 사목국으로(858-3114~5)

■ 2017년 열린 성경 강좌 1

· 일시 : 3월 13일(월) 19: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주제 : 루카 복음 1
· 참가비 : 1인 2,000원
· 강사 : 함원식 신부(영덕 본당 주임)

■ 2017년 안동 48차 선택주말

· 일시 : 3월 31일(금)19:00-4월 2일(주일)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054)652-0591~3
· 대상 : 미혼남여, 사제, 수도자, 신혼부부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도구,
  약간의 간식, 미사준비
· 참가비 : 80,000원
· 문의 및 신청 :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054-858-3114~5)
  남자대표 김경호 나자로(010-4159-9778)
  여자대표 김영희 마리스텔라(010-5185-7867)

▣ 농은수련원 부부피정

· 주제 : 미, 사, 고(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 대상 :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부부(15쌍)
· 일시 : 3월 18일(토)-19일(주일)
· 피정비 : 부부 12만원(숙식, 피정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 054)652-0591/ 010-2785-0591

▣ ConTe 기도모임

· 대상 : 젊은 미혼 여성
· 일시 : 5~10월 둘째주 일요일 14~17시
· 장소 : 청주 예수고난관상수녀회
· 문의 :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제4장
혼인의 사랑

사랑은 너그럽습니다

101. 다른 이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하여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바오로 성인은 사랑의 찬가에서 사랑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자기 것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오로의 다른 서간에도 이와 같은 생각이 나타납니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필립 2,4).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다른 이에 대한 헌신보다 자기 사랑이 더 고귀한 것인 듯이 이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이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심리적 조건으로 자기 사랑을 내세우는 것만은 이해가 됩니다. "자신에게 악한 자가 누구에게 관대하겠느냐? …… 자신에게 인색한 자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집회 14,5-6).

102.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사랑받으려는 것보다 사랑하려는 것이 사랑에 맞갖은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실제로 "사랑에서 으뜸인 어머니들은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랑은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무상으로 베푸는 것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루카 6,35 참조) 다른 이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요한 15,13 참조) 최고의 사랑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모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관대함이 정말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가능합니다. 복음이 이를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

사랑은 성을 내지 않고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103. 바오로의 사랑의 찬가의 첫 부분에 나오는 표현은 다른 이의 약점과 잘못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엄격하게 반응하지 않는 인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파로키네타이"(*paroxýnetai*)라는 또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외부의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아 분노가 치미는 내적 반응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폭력적 반응, 곧 다른 이를 마치 피하여야만 하는 불쾌한 적으로 여기며 우리 자신을 그들로부터 방어하려는 드러나지 않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적 적대감을 키우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을 병들게 하여 결국에는 고립시켜 버릴 따름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심각한 불의에 맞서도록 할 때에는 유익하지만 다른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스며들어 있다면 해롭습니다.

104. 복음은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합니다(마태 7,5 참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앙심을 품지 말라고 끊임없이 충고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마십시오"(로마 12,21 참조).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갈라 6,9). 갑작스럽게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을 감지하는 것과 그 화에 굴복하여 그것이 우리 태도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에페 4,26). 저는 가정을 평화롭게 하지 않은 채로 하루를 마무리하지 말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평화롭게 할 것인가? 내가 무릎을 꿇어서? 아닙니다! 단지 작은 몸짓, 사소한 것으로 가정의 화목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말없이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롭지 않은 채로 하루를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불러일으킨 분노에 대한 내적 반응은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복을 빌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곧 다른 이의 복을 바라고 하느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1베드 3,9). 우리가 악과 싸워야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내면의 폭력은 언제나 거부하여야 합니다.

사랑은 용서합니다

105. 나쁜 감정이 우리 마음을 파고들도록 한다면,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어 구절 '로기제타이 토 카콘"(*logizetai to kakon*)은 '악을 마음에 새기다' 또는 '앙심을 품다', 다시 말해서 '앙갚음하다'를 의미합니다. 그 반대말은 용서이며, 용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태도는 다른 이의 약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많은 잘못을 찾아내려 하고 더 큰 악을 상상하며 온갖 나쁜 의도를 꾸며내어 앙갚음하려는 마음이 매우 깊어지게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어떤 실수나 과오가 사랑의 유대와 가정의 안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때때로 모든 것을 동일한 잣대로 재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이의 모든 잘못에 대하여 지나치게 반응하는 위험이 초래됩니다. 우리의 권리가 존중받기를 바라는 정당한 욕구는 우리의 존엄의 현명한 수호보다는 도리어 복수에 대한 끊임없는 집요한 갈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 다음에 계속 -

살림터 이야기

심부름꾼으로 10년(2)

조태영 세례자 요한
(안동가톨릭문인회)

사회복지사업은 많은 봉사자들을 필요로 한다.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안동교구에서 영주시로부터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운영권을 위탁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휴천동 성당과 하망동 성당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봉사를 하겠다고 봉사자신청서를 내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초기에는 봉사자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부탁하였다.

어느 날 아나바다 행사가 있어서 관장 수녀님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행사장에서 봉사를 하고 있던 두 자매님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였다. “수고하십니다!”라고 일상적인 인사를 하고 가는데 등 뒤에서 “회장님! 저희들을 모르시지요?”라는 말이 들려왔다. 돌아보았더니 조금 전의 두 자매님이 나를 바라보며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보아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누구시더라…” 미안한 마음에 머리를 긁적이며 말꼬리를 흐렸다. “5년 전에 탁구장에 공치러간 우리를 꼬드겨서 봉사하라고 여기에 데려다 주고 갔잖아요! 우리는 그때부터 오늘까지 봉사하고 있어요. 회장님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는 너무나도 즐겁고 보람되게 살아요.”라고 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났다. “아! 맞아요, 이제서야 기억이 납니다, 두 분을 제가 여기에 데려다 주었지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미처 알아보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5년 전에 탁구장에서 처음 만났는데 공을 치는 것이 너무나 서툴러서 레슨을 해주며 복지관에 봉사를 부탁했더니 흔쾌히 승낙해서 복지관에 데려다 준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온 두 자매님을 알아보지 못한 나는 그분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자매님들은 그 이후에도 은빛노인대학의 반 담임도 하면서 나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봉사를 하였다.

복지관 수녀님들은 하망동 성당에 다녔는데 어느 주일 미사를 마친 후 성당마당에서 수녀님들을 만났다. 지친 목소리로 “어제 무료 급식을 하려고 영주 시내에 가볼만한 곳은 다 다녔는데 한 푼도 얻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무료급식은 해야 하는데…, 지금 다리아파 죽겠어요.”라고 걱정스럽게 말하였다. 수녀님들의 딱한 사정을 들어보니,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많고, 지금 하고 있는 도시락 배달도 하망동성당의 <만남의 집>에서 도시락을 지원 받아 택시 기사들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대에서 배달을 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반찬 봉사도 해야 하는데 급식소가 없어서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청에 무료급식을 위한 예산을 청구하였더니 우선 시범적으로 몇 달 해보고 그 결과를 알려 달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경비를 구하려 나섰는데 허탕을 쳤다는 것이다. 수녀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정이 딱했다. 수녀님들이 모금을 하려고 갔으면 좀 도와 줄 것이지 빈손으로 돌려보낸 영주의 유지양반들이 원망스럽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주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상했다. 지쳐있는 수녀님들을 보니 도와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녀님! 걱정 마세요, 이번 주 중에 해결해 볼게요.” 수녀님들을 안심시켜 보내고, 다음날 양지약국, 영주라이온스 클럽 등 몇 곳의 후원을 받고 나도 좀 보태고 해서 그 돈으로 1주일에 1번씩 몇 달 동안 무료급식을 하다가 그 다음해부터는 예산을 배정받아 오늘까지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한번 들렸더니 <경노식당>이란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홀에서 식사하는 어르신들이 약 200여명 정도 되고 도시락 배달도 사오십 개 정도 된다고 하였다. 이제는 그 규모가 하망동성당의 만남의 집보다 크면 컸지 작지는 않은 것 같았다. 가흥종합복지관(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심부름꾼으로 보낸 10년은 내 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람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